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LP 제도에 따른 시장 변화

Derivatives Weekly | 2016. 3. 28

한국에서 LP제도는 신규 상장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현재는 저유동성종목까지 확대되었으며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LP 현황과 이에 따른 시장 변화를 점검했음



최창규 (파생/헤지펀드)

02)768-7600, gilbert.choi@nhwm.com

LP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다

LP(Liquidity Provider)란 매수와 매도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회원사이다.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상품의 유동성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쉽게 매매하는 ETF와 ETN은 물론 저유동성종목에도 LP가 존재한다. 마치 시장의 그림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LP 현황을 조사했다. 생각보다 많은 상품에 LP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LP의 거래세 면제는 시장활성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듯

지난 2014년 주식선물에서 출발한 LP의 거래세 면제는 점차 확대되어 저유동성종목 LP에도 적용된다. 주식선물의 경우 LP의 거래세 면제 이후 거래량의 레벨 업이 나타날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LP의 거래세 면제가 시장활성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인데, 기초자산의 거래량 증가는 덤이다. 이제 파생상품 혹은 종목매매에 있어 LP 존재여부와 헤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품별 LP 현황(2016년 3월 기준)

상품	LP
ETF	운용사는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증권사와 LP 계약을 체결
ETN	증권사, 현재 모든 ETN은 발행 증권사가 담당
Mini 선물, 옵션	Mini KOSPI 200 선물, Mini KOSPI 200 옵션
KOSDAQ 150 선물	8개 증권사가 LP 담당
주식 선물	삼성전자, NAVER, 고려야연, 아모레퍼시픽 등 89개 종목에 대해 종목당 한 개 증권사가 LP를 담당
주식 옵션	삼성전자, 기아차, LG전자 등 20개 종목에 대해 종목당 한 개 증권사가 LP를 담당
섹터지수 선물	금융지수 선물, 에너지화학 선물
배당지수 선물	KOSPI 고배당 50 지수 선물, KOSPI 배당성장 50 지수 선물
VKOSPI 선물	두개 증권사가 LP 담당

주: 불릭 처리된 상품은 LP에 따른 주식매매시 거래세가 면제됨.

섹터지수 선물 중 경기소비재와 정보기술은 LP 미존재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LP 제도, 시장의 그림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발돋움하다

1. LP제도란?

LP(Liquidity Provider)란 매수와 매도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회원사를 말한다. 즉, 매수와 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상품의 유동성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LP의 유동성 공급 대상은 신규 상장상품인 경우가 많았다. 해당 상품이 안착되기 전까지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 거래가 부진한 경우 발생하는 가격 불균형을 합리적인 호가에 체결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LP를 도입한 상품에는 ELW, ETF, ETN과 같은 구조화 상품과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선물과 옵션상품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저유동성종목에 LP를 도입했다.

다만, ELW와 ETN의 경우에는 LP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 대체로 발행 증권사가 LP를 맡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은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아 LP가 제출하는 매도호가를 통해 초기 유동성이 확보된다.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기존 LP 역할과 동일하다.

표 1. 상품별 LP 현황(2016년 3월 기준)

상품	LP
ETF	운용사는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증권사와 LP 계약을 체결
ETN	증권사, 현재 모든 ETN은 발행 증권사가 담당
Mini 선물, 옵션	Mini KOSPI 200 선물, Mini KOSPI 200 옵션
KOSDAQ 150 선물	8개 증권사가 LP 담당
주식 선물	삼성전자, NAVER, 고려야연, 아모레퍼시픽 등 89개 종목에 대해 종목당 한 개 증권사가 LP를 담당
주식 옵션	삼성전자, 기아차, LG 전자 등 20개 종목에 대해 종목당 한 개 증권사가 LP를 담당
섹터지수 선물	금융지수 선물, 에너지화학 선물
배당지수 선물	KOSPI 고배당 50 지수 선물, KOSPI 배당성장 50 지수 선물
VKOSPI 선물	두개 증권사가 LP 담당

주: 볼릭 처리된 상품은 LP에 따른 주식매매시 거래세가 면제됨.

섹터지수 선물 중 경기소비재와 정보기술은 LP 미존재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 2. LP, Market Maker 비교

LP	유동성을 위해 정해진 정량적 규정에 따라 매도, 매수 호가를 제출
Market Maker	포괄적 개념으로 LP, Dealer, Specialist를 모두 포함 Dealer와 Specialist는 의무와 권한이 세부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정성적 규정에 의거해 호가를 제출. 독점인 경우 Specialist, 복수인 경우 Dealer로 지칭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LP의 역할을 담당하는 증권사와 선정과정은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ELW는 발행 증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위탁한다. 유사한 구조인 ETN은 발행사가 직접 LP를 담당한다. ETF는 운용사가 지정한 증권사들이 맡게 되며, 선물과 옵션상품의 경우에는 KRX와 계약을 체결해야 LP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과거 LP는 ELW와 ETF에 한정되었다. 구조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 부족에 따른 가격 괴리 방지가 1차적인 목적이었다. 지난 2006년 11월, KRX는 개별주식 옵션과 스타지수 선물 등에도 LP를 도입했다. 신규 상장된 파생상품과 거래 부진 장기화 파생상품이 많아지면서 내린 조치였다.

당시 LP를 도입한 파생상품은 스타지수선물, 개별주식 선물/옵션, 엔/유로선물, 5년 국채선물 등이었고 정식 명칭은 시장조성자 제도였다.

이제 LP는 시장 유동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LP 수행에 따른 주식매매에서 발생하는 거래세도 면제되어 한층 적극적인 호가 제공이 가능해졌다. (참고: LP 매매의 거래세 면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Mini 선물/옵션, KOSDAQ 150 선물, 주식선물/옵션,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등임)

표 3. LP 관련 제도변경 연혁

일자	내용
2006-11-13	선물 시장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2014-06-01	파생상품시장발전방안 발표
2014-08-28	주식선물 新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발표
2015-03-13	주식파생상품 거래세 한시적 면제시행 (2017.12.31 까지)
2016-03-28	거래세 면제대상 지수파생상품까지 확대 시행 거래세 면제 기간 연장 (2018.12.31 까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LP제도에 거래세 면제의 날개를 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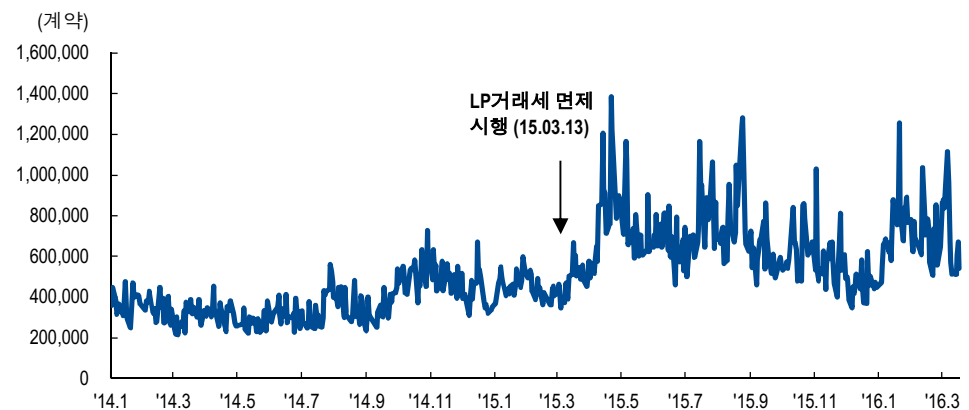
LP의 도약은 거래세 면제에서 출발한다.

지난 2014년 8월 주식선물 제도 개편과 함께 35개 주식선물의 추가 상장, 장기 월물 도입 등 주식선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핵심 변화는 新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에 따른 LP 거래세 면제였다.

파생상품 LP는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출하며 거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현물을 통한 헤지매매를 병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선물매수에 대해서는 현물매도, 선물매도에 대해서는 현물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델타 중립을 수행한다. 이때 발생하는 현물 거래세는 LP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13일부터 2017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P매매에 따른 거래세를 면제했다. 면제의 법리적 근거는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활성화가 기초자산의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세수 확대로 연결된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LP 거래세 면제 이후 주식선물의 거래량은 한 단계 레벨 업 되었다.

그림 1. LP 거래세 면제 이후 주식선물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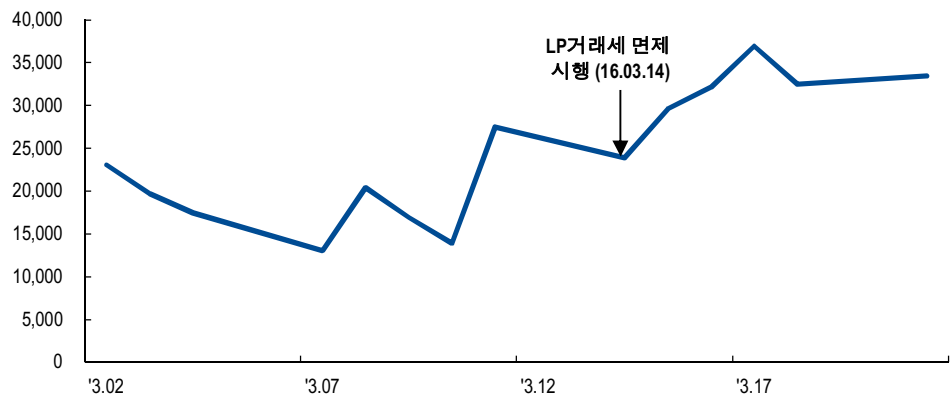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어서 지난해 발표된 2015년 세계개편안에는 LP 거래세 면제 대상상품의 확대가 포함되었다. 지수선물까지 확대되었다. 섹터지수선물(에너지화학, 금융지수), Mini 선물/옵션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된 신규 파생상품인 배당지수선물(고배당 50, 배당성장 50)과 KOSDAQ 150 선물도 LP 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해당 상품의 LP인 증권사들이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들의 바스켓매매에 대한 거래세 면제를 받게 된다. 또한 기존의 2017년까지였던 일몰 기한은 1년 연장된 2018년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림 2. LP 거래세 면제 이후 미니 선물 거래량



주: 2016.03.14 부터 지수 파생상품에 거래세 면제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합인포맥스,

표 4. LP 거래세 면제 관련 법률 조항

구분	변경전(舊조특법§117①2의 5 외)	변경후(現조특법§117①2의 5 및 3 외)
대상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상 거래	파생상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단, 파생상품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	-(2호의 5)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목의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나) 그 외 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기초자산인 주권 단, 파생상품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 -(3호)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면제 기간	시행일 ~ '17년 12월 31일	-(2의 5 호가목) 시행일 ~ '18년 12월 31일 -(2의 5 호나목) 시행일 ~ '17년 12월 31일 -(3호) 시행일 ~ '18년 12월 31일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SD

다만, 거래세 면제를 위한 절차는 까다로운 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는 LP가 되는 증권사는 헤지매매 전용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거래일 익일에 ‘위험회피거래서’와 ‘일일 파생상품거래내역’을 작성해 예탁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KRX 역시 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예탁원에 일일 신고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전산적으로 이루어진다. KRX와 예탁원 두 개의 외부기관에서 비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헤지매매를 위한 주식거래량을 초과하는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면세거래에 대한 한도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 한도거래량 = 파생상품거래량 × 승수 × 종목델타

Ex) LP 삼성전자 100계약 매수 : 100계약 × 10 × 1 = 1,000주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 지수내 종목별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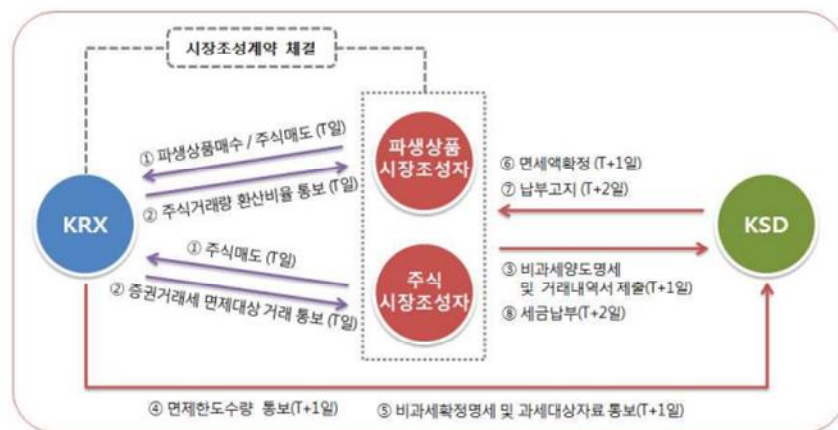
= 파생상품거래량 × 승수 × 종목델타 × 지수종가 × 지수 내 시총비중 ÷ 종목종가

Ex) Mini KOSPI 200 선물 100계약 매수시 삼성전자 면세한도

(지수종가 244.79p, 삼성전자 130만원 가정)

: 100계약 × 10 × 1 × 244.79 × 0.21 ÷ 130만원 = 384주

그림 3. LP 면세제도 업무프로세스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SD

그림 4. 헤지매매를 위한 주식거래량 한도(주식선물)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SD

그림 5. 헤지매매를 위한 주식거래량 한도(지수선물)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SD

3. 증권사별 LP 현황과 시장 영향 분석

선물/옵션 상품의 LP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상 KRX와 최소 1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유동성이 풍부한 KOSPI 200 선물과 옵션은 LP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선물의 경우, 증권사가 상장된 89개 종목 모두에 대해 LP가 존재한다. 종목당 지정된 한 개 증권사가 호가 제출을 맡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주식선물 LP 담당 증권사는 NH(11개), 대신(6개), 메리츠(5개), 신영(13개), 신한(14개), 유안타(6개), 한국투자(11개), 현대(12개), 대우(10개)로 모두 9개의 증권사가 있다.

지수선물의 경우 주식선물에 비해 LP 참여 증권사가 많지 않다. 주식선물에 비해 매매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Mini KOSPI 200 선물/옵션과 KOSDAQ 150 선물은 NH, 대신, 메리츠, 신영, 신한, 유안타, 한국투자, 현대 등 8개의 증권사가 담당하고 있다. 배당지수선물(고배당 50 지수, 배당성장 50 지수)은 대신과 한국투자 증권이, 섹터지수 선물(금융지수, 에너지화학)은 NH투자증권이 LP를 맡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아직도 부족한 주식선물의 활성화와 차익거래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주식선물 기초종목의 확대와 복수 LP 허용 추진에 대한 블루시트(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직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올해 안으로 주식선물에 대한 복수 LP 등이 허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더욱 적극적인 호가 제시와 함께 다양한 매매기법이 등장할 전망이다.

표 5. 지수선물, 옵션 LP 현황(2016년 3월 기준)

상품명	LP 증권사
Mini KOSPI 200 선물, 옵션	NH 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KOSDAQ 150 선물	NH 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금융지수 선물	NH 투자증권
에너지화학 지수	NH 투자증권
고배당 50 지수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배당성장 50 지수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RX

표 6. 주식선물 LP 현황(2016년 3월 기준)

증권사명	주식선물 종목명
NH 투자증권 (11개 종목)	기아차, LGD, 현대모비스, 대우증권, S-Oil, 기업은행, 대한항공, 삼성카드, 두산인프라코어, 제일기획, 서울반도체
대신증권 (6개 종목)	GS 건설, SK 네트워크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넥센타이어, DGB 금융지주, 씨젠
메리츠증권 (5개 종목)	NH 투자증권, 현대미포조선, 한화, 한화생명보험, 웹젠
신영증권 (13개 종목)	네이버, LG 전자,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현대제철, 삼성전기, 삼성증권, 고려아연, 한국항공우주, SK 하이닉스, 현대글로벌비스, 다음카카오, 포스코 ICT
신한금융투자 (14개 종목)	삼성전자, KB 금융, 엔씨소프트, 한국금융지주, 호텔신라, LG 유플러스, LG, CJ, 롯데쇼핑, 우리은행, 삼성물산, GKL, CJ E&M, YG 엔터테인먼트
유안타증권 (6개 종목)	삼성 SDS, 한화케미칼, 금호석유, BNK 금융지주, LG 상사, 파라다이스
한국투자증권 (11개 종목)	현대차, POSCO, LG 화학, 하나금융지주, 삼성 SDI, 삼성생명, KT&G, 현대위아, 이마트, 대상, LG 이노텍, 원익 IPS
현대증권 (12개 종목)	SK 텔레콤,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 대림산업, 한국타이어, 미래에셋증권, 아모레퍼시픽, OCI, SK, 셀트리온
대우증권 (10개 종목)	KT, 현대중공업, SK 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CS, 한화테크윈, 두산중공업, 하이트진로, 대우인터내셔널, 강원랜드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RX

표 7. 금융지주 선물 구성종목

종목코드	종목명	주가	시가총액(백만원)
A032830	삼성생명	113,500	22,700,000
A055550	신한지주	41,550	19,702,993
A000810	삼성화재	297,500	14,094,014
A105560	KB 금융	32,100	12,401,889
A086790	하나금융지주	23,700	7,015,273
A024110	기업은행	11,900	6,621,183
A000030	우리은행	9,260	6,259,760
A088350	한화생명	6,570	5,706,242
A005830	동부화재	73,400	5,196,720
A029780	삼성카드	37,550	4,350,501
A016360	삼성증권	40,600	3,103,268
A138930	BNK 금융지주	9,180	2,992,086
A005940	NH 투자증권	9,860	2,774,692
A006800	대우증권	8,270	2,701,816
A037620	미래에셋증권	22,300	2,548,575
A071050	한국금융지주	45,050	2,510,456
A003450	현대증권	6,650	1,573,473

주: 3월 24일 종가 기준임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RX

표 8. 정보기술 선물 구성종목

종목코드	종목명	주가	시가총액(백만원)
A005930	삼성전자	1,282,000	185,978,890
A000660	SK 하이닉스	29,450	21,439,670
A035420	NAVER	624,000	20,568,712
A034730	SK	236,500	16,640,210
A018260	삼성에스디에스	186,000	14,392,271
A003550	LG	68,200	11,768,396
A066570	LG 전자	62,500	10,227,988
A034220	LG 디스플레이	26,500	9,482,116
A006400	삼성 SDI	102,000	7,013,982
A036570	엔씨소프트	242,000	5,306,823
A009150	삼성전기	57,500	4,294,888
A011070	LG 이노텍	81,300	1,924,136
A029530	신도리코	48,650	490,393
A020150	일진머티리얼즈	12,500	490,000
A004710	한솔테크닉스	20,850	460,991
A008060	대덕전자	8,350	407,449
A042700	한미반도체	12,850	326,812

주: 3월 24일 종가 기준임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RX

표 9. 경기소비재 선물 기초지수 구성종목

종목코드	종목명	주가	시가총액 (백만원)
A114090	GKL	155,500	34,252,992
A093050	LF	144,000	27,315,366
A064960	S&T 모티브	250,500	24,384,638
A034120	SBS	49,550	20,085,754
A001740	SK 네트웍스	41,750	8,932,016
A035250	강원랜드	257,500	8,108,905
A000050	경방	93,900	7,242,018
A073240	금호타이어	53,400	6,614,929
A000270	기아차	234,500	5,518,706
A002350	넥센타이어	9,420	5,028,396
A019680	대교	146,500	3,428,458
A007340	동아타이어	89,500	3,400,926
A023530	롯데쇼핑	110,000	2,991,459
A009680	모토닉	66,100	2,594,301
A084870	베이직하우스	57,100	2,284,000
A028260	삼성물산	48,400	2,144,675
A007860	서연	17,900	2,059,238
A004490	세방전지	206,000	2,028,107
A033530	세종공업	21,500	1,999,934
A004170	신세계	6,480	1,608,256
A003620	쌍용차	128,500	1,542,000
A005850	에스엘	23,750	1,469,072
A012750	에스원	14,600	1,407,672
A111770	영원무역	8,790	1,388,760
A003200	일신방직	8,180	1,122,460
A030000	제일기획	75,800	1,091,777
A004700	조광피혁	40,000	985,200
A021240	코웨이	10,150	859,734
A161390	한국타이어	26,100	763,164
A00024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36,000	621,419
A060980	한라홀딩스	26,100	619,275
A009240	한샘	54,700	590,907
A020000	한섬	40,950	573,300
A105630	한세실업	30,000	547,577
A004150	한솔홀딩스	15,950	540,148
A018880	한온시스템	182,500	500,329
A079430	현대리바트	7,810	357,015
A012330	현대모비스	10,350	341,550
A069960	현대백화점	142,000	340,800
A011210	현대위아	12,650	284,435
A005380	현대차	38,650	256,989
A057050	현대홈쇼핑	6,660	232,570
A008770	호텔신라	9,300	193,968
A010690	화신	9,460	189,715

주: 3월 24일 종가 기준임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RX

표 10. 에너지화학 선물 기초지수 구성종목

종목코드	종목명	주가	시가총액 (백만원)
A078930	GS	318,500	21,107,345
A051910	LG 화학	160,500	14,840,723
A010060	OCI	325,500	11,156,649
A010950	S-Oil	91,100	10,256,292
A011790	SKC	54,800	5,091,763
A096770	SK 이노베이션	143,000	5,021,796
A006120	SK 케미칼	23,450	3,864,779
A007690	국도화학	36,200	2,713,506
A011780	금호석유	91,200	2,175,063
A025860	남해화학	80,900	1,966,133
A006650	대한유화	78,200	1,883,021
A014820	동원시스템즈	59,800	1,821,968
A004000	롯데정밀화학	70,100	1,760,898
A011170	롯데케미칼	244,000	1,586,000
A014830	유니드	31,100	1,144,391
A120110	코오롱인더	954,000	1,062,184
A003240	태광산업	38,950	1,004,910
A002960	한국셀석유	17,500	715,375
A014680	한솔케미칼	59,400	670,935
A000880	한화	475,500	618,150
A009830	한화케미칼	52,500	466,717
A004800	효성	9,280	461,020
A093370	후성	4,445	410,717
A079980	휴비스	62,800	364,907
A069260	휴캠스	8,840	304,980

주: 3월 24일 종가 기준임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RX

마지막으로 LP 도입과 거래세 면제에 따른 시장 영향을 생각해 볼 순서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KRX의 움직임에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파생상품에 한정되었던 LP를 주식에도 확대 적용했다.

저유동성종목에 한해 ‘시장조성자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저유동성종목의 기준은 일평균거래량, 유효스프레드, 체결듀레이션 총 3가지 평가지표를 통해 선정했다. KRX는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374개 (KOSPI 127개, KOSDAQ 247개)의 저유동성종목군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해당 종목에 대해 모두 시장조성자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두 개 증권사가 각각 15개의 저유동성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유동성종목 LP에도 앞서 파생상품 LP와 동일하게 거래세에 대한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최근 KRX는 금현물시장의 성장 방안으로 연내에 LP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KRX의 이러한 행보는 LP 도입과 이에 따른 긍정적 선순환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LP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는 1) 투자자의 거래비용 감소와 편의 제고, 2) 저유동성상품의 유동성 증가 3) 다양한 매매기법의 등장 가능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는 교과서적인 답안에 가깝다.

LP 입장에서 거래세 면제를 내야 하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다. 핵심은 간단하다. 시장의 그림자였던 LP가 이제는 주인공으로 변신할 시기가 곧 도래한다는 점이다. 파생상품 혹은 종목매매에 있어 LP 존재여부와 헤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저유동성종목 LP 도입 선정기준

유동성평가기준	평가지표	해당기준(최근 1년간 접속매매 기준)
양적기준 부진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또는 하위 50%
질적기준 부진	유효스프레드	3Tick(호가단위) 초과 또는 하위 50%
거래빈도 양호	체결듀레이션	10분 이내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RX

표 12. 주식시장 LP 적용 대상 종목 거래량 기준 상위 30 개 (KOSPI)

(단위: 주, %, Tick, 초)

종목코드	종목명	일평균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백분위	유효스프레드	유효스프레드 백분위	체결주기
A008420	문배철강	80,518	50.1	3.21	63.2	124.2
A015590	대경기계	79,982	50.2	2.61	54.4	78.8
A006880	신송홀딩스	76,996	50.3	2.90	58.9	28.0
A117580	대성에너지	76,908	50.5	2.70	55.8	45.8
A010040	한국내화	76,774	50.6	4.39	73.2	70.9
A047400	쌍용머티리얼	76,467	50.7	4.12	71.4	82.3
A005870	휴니드테크놀로지스	75,525	51.1	6.50	82.6	87.3
A007700	F&F	72,934	51.5	2.29	50.2	38.9
A005030	부산주공	70,961	51.9	5.87	80.3	85.9
A018500	동원금속	69,424	52.3	3.18	62.6	104.8
A010640	진양폴리우레탄	67,394	52.9	3.87	69.6	99.4
A023000	삼원강재	66,739	53.2	3.08	61.2	41.9
A163560	동일고무벨트	63,241	54.0	2.32	50.7	32.9
A007160	사조산업	62,074	54.4	2.37	51.3	12.7
A000180	성창기업지주	60,799	54.6	2.58	54.2	39.3
A009070	KCTC	60,716	54.8	7.08	84.3	75.7
A002390	한독	60,537	54.9	2.77	56.9	34.4
A005070	코스모신소재	59,249	55.4	4.96	76.6	73.1
A005320	국동	57,349	55.8	2.93	59.6	36.9
A003070	코오롱글로벌	56,991	56.0	2.70	55.6	21.8
A129260	인터지스	56,395	56.2	5.95	80.7	48.0
A023810	인팩	55,222	56.3	3.37	65.0	38.9
A001420	태원물산	54,406	56.7	5.89	80.4	200.4
A005420	코스모화학	54,244	56.9	3.70	67.5	42.7
A000520	삼일제약	51,784	57.7	7.14	84.4	193.2
A008040	동아원	51,522	57.8	4.76	74.9	92.6
A009160	SIMPAC	51,081	58.3	2.50	53.2	29.7
A069730	DSR 제강	50,237	58.5	4.93	76.4	104.0
A003680	한성기업	49,475	58.8	6.76	83.5	145.2
A058730	동아에스텍	48,927	58.9	4.93	76.5	59.7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RX

표 13. 주식시장 LP 적용 대상 종목 거래량 기준 상위 30 개 (KOSDAQ)

(단위: 주, %, Tick, 초)

종목코드	종목명	일평균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백분위	유효스프레드	유효스프레드 백분위	체결주기
A089140	넥스톤	167,077	50.3	4.83	73.8	37.6
A078350	한양디지텍	167,003	50.4	4.45	70.8	40.4
A056700	신화인터텍	166,812	50.5	3.55	60.5	35.6
A086890	이수앱지스	166,640	50.6	4.35	69.8	21.3
A033310	디케이디앤아이	166,450	50.6	4.64	72.5	58.7
A045890	동부라이텍	166,395	50.7	3.23	54.1	80.8
A018620	우진비앤지	165,147	50.9	5.08	76.6	39.6
A109820	진매트릭스	160,983	51.2	6.36	86.2	44.8
A068930	디지털대성	159,961	51.3	3.34	55.9	28.7
A103230	에스앤더블류	159,530	51.4	7.48	92.0	466.2
A024060	흥구석유	157,670	51.8	3.40	57.1	62.9
A196490	디에이테크놀로지	157,357	51.9	4.91	74.6	47.5
A091580	상신이디피	156,645	52.0	4.48	71.1	34.2
A039860	나노엔텍	155,889	52.1	3.70	62.1	23.4
A158310	세호로보트	155,794	52.2	4.52	71.3	42.7
A086040	바이오톡스텍	155,616	52.3	5.80	82.7	44.7
A085670	뉴프렉스	155,572	52.4	3.48	59.0	62.5
A050540	엠.피.씨	154,272	52.6	4.02	66.3	61.2
A010470	오리콤	151,692	52.8	5.15	77.2	34.2
A189690	포시에스	151,271	52.9	3.60	61.0	36.9
A134060	이퓨처	150,926	53.1	7.11	90.8	49.3
A115500	케이씨에스	149,552	53.1	4.19	68.4	52.0
A138610	나이백	148,795	53.3	3.79	63.5	23.5
A114190	웰크론강원	148,132	53.4	4.39	70.2	62.6
A052460	아이크래프트	147,158	53.6	6.77	88.5	126.1
A005670	푸드웰	146,667	53.7	5.25	78.2	73.9
A076080	웰크론한텍	145,632	53.9	3.17	52.6	47.4
A115480	씨유메디칼시스템	144,129	54.4	4.41	70.6	33.7
A099410	동방전기	143,878	54.5	3.04	50.0	53.1
A008800	행남자기	143,664	54.6	6.21	85.2	40.3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RX

NH 투자증권 파생충동 발간 목록

	종류	작성자	제목
2013-01-16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뱅가드 EM ETF 이슈
2013-01-30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ETN(상장지수채권)
2013-02-21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국부펀드와 퇴직연금
2013-03-14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NHN의 기업분할
2013-03-27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KOSPI 200 종목 변경
2013-04-18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SRI의 모든 것
2013-05-13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합성 ETF의 기초자산 시리즈 1탄
2013-05-23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합성 ETF의 기초자산 시리즈 2탄
2013-07-25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인덱스펀드가 기업분할 이벤트에 대응하는 방법
2013-09-11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중위험/중수익 상품
2013-10-02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CB 투자방법
2013-11-13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2013년 연말배당
2013-11-25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연금의 Focus-List
2013-11-28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비트코인 차익거래
2014-01-06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2014년의 New 파생상품들
2014-01-27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구원투수(세제혜택 투자상품)의 등판
2014-02-24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스마트베타(Smart-Beta)의 모든 것
2014-04-14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2014년 KOSPI 200 정기변경
2014-04-21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실망을 안겨준 2013년 KOSPI 200 연말배당
2014-05-12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펀드슈퍼마켓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2014-05-26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보호예수(Lock-Up)
2014-05-30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2014년 KOSPI 200 정기변경 확정
2014-07-21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블랙기업(Black Corporation)과 SRI
2014-09-15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현/선물 시장 제도 개편
2014-09-22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해외지수 레버리지 ETF와 ELS 인덱스펀드
2014-09-29	이슈분석	최창규	Derivatives Weekly - 삼성 SDS는 'K-OTC'에서 미리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2014-11-17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이(E)제 투(T)자해야 내(N)일이 있다, ETN
2014-11-24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올해 KOSPI 200의 연말배당은 얼마나 늘어날까?
2014-12-22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글로벌 울트라(Ultra) ETF와 중국 본토 ETF 정리
2015-03-16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M&A에 참여하는 간단한 방법, 스팩(SPAC)
2015-06-08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Mini 선물
2015-07-13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KTOP 30 활용 방법
2015-08-03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스팩(SPAC), 될 수 밖에 없는 시장
2015-10-14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기계적 자산배분,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
2015-10-28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와 무한경쟁 예고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